

Reassessment of Library Education in Korea(Retraining)

◆ 特 輯

우리나라 圖書館學 教育의 再評價

—再教育을 中心으로—

李 澤 瀾
國立中央圖書館司書官

I. 序 言

우리나라의 圖書館學 教育은 1944年 4月 朝鮮圖書館學校(國立圖書館附設)에서 始發되었다. 그 後 大學課程 및 大學의 特設코스로서 發展하고, 法的인 認定은 1966年 文教部令으로 公布된 圖書館法施行規則 第5條에 依據 1967年 가을에 始作한 司書講習(國立中央圖書館 主管)이 第20回(正司書 5回, 準司書 15回) 繼續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 날 圖書館學 教育은 時代의 要請에 應하여 새로운 方向으로 轉換하여야 할 時期라고 하여 過言은 아닐 것이다. 特히 1963年 圖書館法 制定以來 圖書館學 教育은 거듭되는 短期司書講習과 專門學校 大學에 있어서의 圖書館學科 增設趨勢인 成長에 注目할 必要가 있다. 이와 같은 結果는 司書의 量的 增大와 質의 低下에 直面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에 韓國圖書館協會나 文教當局은 圖書館學 教育의 課題에 對한 改善方策을 檢討하여야 할 것이다. 自律的인 圖書館人의 活動으로서 圖書館協會의 專門分委活動의 一環으로서 圖書館學 教育改善의 諸問題에 對한 公開場 役割로서 集約된 意見을 教育改革에 反映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世界的 視野를 가지고 우리나라 圖書館學教育을 바로 잡자면 무엇보다도 世界 主要國의 圖書館學 教育의 歷史, 現狀이나 問題點을 究明하여 우리나라의 圖書館學 教育上 必要한 것이 무엇인가를 檢討함이 先行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圖書館學 教育에 世界史的 視野를 導入함으로써 우리나라 圖書館學 教育의 姿勢를 明確化할 수 있는 同時에 改革方向을 示唆 또는 模索할 수 있으며, 모든 모습을 探究하는데 큰 成果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圖書館學教育의 改善은 먼저 그 實態를 明白하게 把握하여야 할 것이다. 이 問題에 對하여 文教當局과 韓國圖書館協會의 教育分科委員會에

서 徹底한 調査를 實施할 것을 提言하는 바이다.

II. 圖書館學教育制度에 關한 問題點

우리나라의 圖書館學教育의 改善은 教育制度의 確立 없이는 達成할 수 없을 것이다. 이 課題에 對하여는 教育分委에서 圖書館學 教育의 實態와 外國의 教育事情 등을 檢討하여 圖書館學教育改善試案을 事前에 作成하여 圖書館界의 意見을 集約하면서 檢討를 進行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試案을 討議의 素材로 하여 圖書館學教育制度의 確立에 對한 問題를 考察할 수 있어야 하겠다. 卽

- (1) 圖書館學教育制度는 如何히 할 것인가.
- (2) 圖書館學教育의 教育過程은 어떻게 編成할 것인가.
- (3) 圖書館學教育의 效果를 높이는 데 必要한 教授陣, 資料, 施設 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
- (4) 圖書館學教育과 司書資格의 賦與는 어떻게 할 것인가.
- (5) 圖書館學教育制度의 法制化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 問題를 中心으로 討議를 거듭할 必要가 있다고 하겠다.

III. 圖書館學教育課程의 實施問題

圖書館學教育計劃의 確立과 더불어 教育課程을 어떻게 하면 效果의 으로 實施할 것인가는 큰 問題點이 아닐 수 없다. 特히 이 問題는 科目의 指導事項을 精選하여 體系化하는 것이 基本的인 問題이다. 이 問題에 對하여도 教育分委는 圖書館學에 對한 教授要目を 作成하여 이것을 역시 討議資料로서 檢討를 進行하였으면 한다.

이와 같이 教育制度의 確立, 教育課程과 教授要目の 充實만이 現下 圖書館學教育의 改革에 있어서 基本的

인 課題이다.

N. 圖書館學教育的改善方向

그러면 여기에서 觀點을 轉換하여 우리나라의 圖書館學教育是 어떻게 改善해 나갈 것인가. 다시 한번 이 問題의 原點에 서서 생각할 必要가 있다.

말할 것도 없이 圖書館學教育是 圖書館에 奉職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重要的 問題이다. 그러므로 教育分委나 教育擔當者는 물론, 公共圖書館, 大學圖書館, 專門圖書館 등의 立場에서도 이 問題를 생각할 수 있도록 심포지움의 形式으로 討議를 거듭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심포지움은 圖書館學教育的 實態에서 現實的으로 圖書館學教育是 如何한 位置에 있는가. 그 姿勢를 明白하게 把握하는 同時에 改善의 具體的인 方策에 對하여 協議하도록 意圖하여야 할 것이다.

- (1) 期待하는 司書像은 어떻게 把握할 것인가.
- (2) 司書가 要求하는 理論과 技術은 어떠한 것이며, 그것에 對應한 圖書館學教育是 어떠한 것으로 할 것인가.
- (3) 公共圖書館의 司書養成은 어떻게 할 것인가.
- (4) 大學·專門圖書館의 司書養成은 어떻게 할 것인가.

(5) 이러한 多角的인 問題의 討議를 거듭함으로써 우리나라 圖書館學教育是 어떻게 改善할 것인가의 具體的인 方策에 對하여 檢討한다.

以上 教育分委는 우리나라 圖書館學教育이 當面한 現下의 基本的인 問題에 對하여 實態의 調査 및 教育擔當者나 館界의 協力을 추진하여 그 課題의 解決에 努力하여야 함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圖書館界에서 圖書館法의 改正方向을 提示하고 있는 것을 要約하여 大別한다면 다음 두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 卽 하나는 公共圖書館을 좀더 利用價値가 있는 것으로 奉仕를 強化할 수 있는 體制로 하고, 또 하나는 圖書館 自體도 좀더 主體性을 發揮할 수 있는 方向으로 法改正을 促求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것은 오늘날 公共圖書館 問題의 核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圖書館의 實態를 改善하는 圖書館自體의 努力이 要請되기도 한다. 具體的으로 말한다면 圖書館資料의 增大 또는 充實에, 圖書檢索 및 入手에 關한 圖書館員의 서비스強化에, 資料의 增大나 奉仕의 強化에 의하여 必要로 하는 勞力을 傾注하기 위한 整理業務의 合理化, 集中化에, 그리고 이를 爲한 圖書館相互間의 協力關係 實現에, 또한 奉仕網의 擴充이나 合理化를 위한 全國 自然部落單位로 組織되어 있는 3萬5千餘의 마을文庫등과 圖書館活動의 一體化를 成事시켜본다는 現體制의 狀況下에서도 改善할 수 있는 것부

터 周圍의 壁을 스스로 깨볼 必要가 있다. 省力을 爲한 整理業務의 合理化는 印刷카드의 普及이 가장 效果의이며 이것을 迅速하게 入手할 수 있게 하자면 出版社가 出版과 同時에 카드를 印刷하는 것을 義務化하는 것이 必要하지만, 이러한 것을 實現시키는데 있어서는 政府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政府의 理解와 協力이 있어야 함에도 圖書館界는 이에 無關心하고 있음은 理解하기 困難하다. 圖書館奉仕의 改善에 對하여도 이것을 一般에게 理解시키기 위하여는 宣傳活動이 要求되지만 圖書館間의 손과 발이 맞지 않아 新聞의 協力조차 얻지 못하고 있음은 極히 遺憾된 일이라 하겠다. 무엇보다도 圖書館自體에 對한 啓蒙이 必要하다는 皮肉과 같은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圖書館의 實態가 아닌지 모르겠다.

어떤 사람은 圖書館 自體의 改善은 圖書館制度의 改善에 의하여 實現되는 것으로, 自體만으로는 改善을 求할 수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一方의 人 見解로서, 어느 쪽이나 原因이 되고 있다. 卽 兩者는 鷄와 卵의 關係이다. 그러므로 積極的으로 어느쪽인가를 可能하게 하는 手段을 講究하지 않으면 問題는 永久히 解決할 수 없으며, 더욱 鷄와 卵의 雙方에서 同時에 解決을 圖謀하는 努力이 가장 效果的인 目的을 達成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된다.

法改正이나 圖書館學教育 및 司書講習科目의 改善問題에 있어서 圖書館界의 消極的인 姿勢에 對하여 失望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陳情은 劃期的인 制度의 改正으로서 圖書館人의 多年間에 걸친 念願임은 틀림 없는 事實이다. 그러나 法律이나 制度의 改善은 圖書館大會의 決議나 政府 및 其他 關係方面에의 決議文의 手交라는 形式的인 手續만으로는 實現되는 것이 아니라 實現될 때까지 繼續 끈기있는 陣情도 必要할 것이며 매스컴을 통한 外國事情의 紹介도 必要하며, 또한 全國圖書館의 連署에 의한 陣情을 시도할만한 일이라 하겠다. 法改正은 政府에서 하는 일이라 傍觀的인 態度를 취한다든가, 誠意가 없는 政府를 相對할 수 없다는 등 消極的인 姿勢로서는 問題解決은 期待할 수 없다.

여기에서 한마디 보태여 들것은 法律制度의 改善은 國家의 손으로 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이다. 卽 司書教育制度나 司書의 資格, 및 圖書館의 基準은 國家가 아니면 定할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圖書館 自體의 自主規制에 의하여 定하는 法律도 있을수 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英國에서는 司書에 대하여 直接 間接으로 圖書館協會에서 ALA(圖書館協會協力員), FLA(圖書館協會會員)의 稱號를 賦與하고 있어 큰 權威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珠算은 民間의 檢定으로 全國에 通用되어 權威가 있다. 만약 全國圖書館이 一體가 되어 強力한 組織體로 構成된 圖書館協會가 圖書館全體에 通用하는 司書制度를 確立한다면, 官公署에서는 所管이 散在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一體化를 바랄 수 없는 圖書館制度의 統一實現에 對한 基礎가 構築하게 되어, 우리나라 圖書館의 振興發展에 寄與되는바 크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圖書館現狀에서 無理한 일이겠으나 一考의 餘地는 있을 것이다.

V. 圖書館職員의 研修

近年 特히 公務員의 增加抑制에 政府는 힘쓰고 있다. 國立 및 公立의 圖書館도 例外일 수는 없다. 이에 對應하자면 現有職員의 資質을 向上시켜 潛在能力을 啓發하고, 그 能力을 最大限으로 活用하는 方策을 講究하여 業務遂行에 대한 綜合能力의 向上으로 指向하여야 한다. 研修는 人事上의 投資이다. 無限의 可能性을 지닌 投資이며 그 觀點에서 職場內 職場外 各種의 研修도 人事管理 機能의 하나로 생각하여야 한다. 館內研修는 고사하고 外部에 委託派遣하는 研修에 있어서는 時間, 旅費, 參加費 등의 出費가 所要됨으로 投資效果가 있는 研修에 參加시키는 施策으로서 人材育成의 一環에 의한 研修를 活用하여야 한다. 그러나 研修制度가 確立되어 그 運營에 萬全을 期하고 있더라도 最後로 남는 것은 研修를 받는 當事者 自身の 問題이다. 研修參加에 充分한 體制를 갖추고 研修期間中 仔細한 配慮가 되어 있더라도 研修의 成否의 關鍵을 쥐고 있는 것은 역시 研修生 自身에게 달려 있다. 研修의 成果를 결우자면 本人의 努力은 물론 動機를 賦與하여 研修參加意欲을 高취하고 또한 끊임 없이 自己啓發을 불려 이르게 研修效果가 있도록 細心한 注意가 必要하다.

이러한 點에 立脚하여 政府에서도 一般公務員敎育院을 위시하여 技能公務員의 研修機關으로 稅務, 交通, 遞信公務員敎育院 등을 設置하여 週期的으로 再研修를 實施하고 있다.

이와 같이 各部門에 걸쳐 人事面에서 研修를 重要視하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圖書館에서 奉職하는 職員에 對한 研修機關이 國立中央圖書館의 附屬施設로서 갖추어졌으면 한다. 圖書館職員의 勤務能率을 發揮하고 增進을 爲한 研修課程을 具體的으로 다음 몇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보고자 한다.

(1) 新規採用職員의 研修

이 研修의 意義와 必要性은 新規採用職員에 對하여 所屬圖書館의 目的, 使命, 組織 등에 關한 知識을 넣어

주어, 職員으로서 하여금 心得함으로서 必要한 勤務上의 一般의인 知識을 갖추어 勤務의 適正圓滑과 公務能率의 向上을 期하는데 있다. 이러한 目的으로서 研修科目은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가. 圖書館職員으로서의 心得事項

나. 組織과 機能

다. 各部署의 業務概要

라. 日常勤務常識

마. 特別講義

바. 見學時間

特別講義는 近年 漸次로 複雜多岐해가는 圖書館業務의 機械化라는 觀點에서 電子計算機의 概要와 職場에 配置되어 直時 必要한 電話의 應對方法 등을 들 수 있다. 見學은 圖書館職員의 交流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狀態에서 더욱 圖書館의 實狀을 認識시키는 意味에서 公共圖書館, 大學圖書館, 專門圖書館 등 適宜一, 二館을 選擇하여 見學시키도록 하여야 될 것이다.

(2) 司書業務研修

이 研修는 司書職員의 專門知識에 對한 涵養과 技術의 向上을 圖謀하여 能率의 增進, 業務運營의 圓滑化에 目的을 두고 自館에서 實施할 수도 있고 他機關에 派遣하여 實施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研修科目을 構想하여 보면 大概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가. 圖書館資料의 選擇과 蒐集

나. 目錄記述法(實習을 包含한다)

다. 圖書의 分類와 主題名의 標目法(實習을 包含한다)

라. 圖書館資料의 保管과 利用

① 圖書一般

② 逐次刊行物

③ 音盤

④ 地圖

⑤ 마이크로資料

마. 基本參考圖書와 書誌

① 參考圖書와 參考業務

② 社會科學關係

③ 人文科學關係

④ 科學技術關係

⑤ 公刊行物關係

⑥ 其他 特殊主題關係

바. 圖書館協力

① 國內圖書館과의 協力

② 外國圖書館과의 協力

③ 其他 類緣機關과의 協力

사. 特別講義

① 韓國의 出版社

- ② 出版物の 納本制度
- ③ 電子計算機入門
- ④ 도큐멘테이션概要
- ⑤ 情報化社會와 圖書館
- ⑥ 歐美各國 圖書館에 있어서의 閱覽奉仕의 諸形態
- ⑦ 圖書館을 中心으로 한 著作權法

(3) 語學研修

가. Reding, Writing 研修

圖書館職員이 業務上 外國語의 知識, 能力을 必要로 함은 말할 나위없다. 그리고 必要로하는 外國語의 種類도 많다. 그러한 意味에서 圖書館은 語學研修의 必要性이 絶對的이라 하겠다. 講師는 館外人事를 招聘하는가 館內職員으로 充當하여 一年에 一語種을 選擇하여 1日 1時間程度 實施하되 需要度가 높은 것부터 選定하여야 할 것이다. 必要語種을 列舉하여 보면, 佛語, 獨語, 日語, 中國語, 土耳其語, 스페인語, 스웨덴語, 러시아語, 이태리語 등이 있다.

나. Hearing, Speaking 研修

圖書館은 國內人 뿐 아니라 英美를 위시하여 諸外國에서의 閱覽者, 訪問客 등이 많이 있으므로 語學練習裝置를 設置하여 혼이 많이 쓰이는 外國語부터 會話의 初級, 中級, 레벨의 研修를 實施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晝間의 休憩時間에 職員에게 語學研修室을 開放하여 語學練習裝置를 自由로히 使用케하여 語學力의 向上을 例面에서 援助하는 自學自習의 便利를 提供함도 바람직한 일이다.

(4) 委託派遣研修

이 研修는 海外派遣을 除外하고라도 館內에서 實施하는 集合研修와는 別途로 政府, 民間, 大學 등 諸機關에서 開催되는 研修는 適時에 職員을 어떠한 一定期間 參加시켜 理論 또는 實務를 習得토록 하는 研修이다. 館內에서는 經費關係로 容易하게 實施할 수 없는 研修나 館內에서는 簡單하게 習得할 수 없는 實務의 研修 등 案內가 있을 때에 檢討하여 派遣을 決定하지만, 豫算이나 職員의 空席關係도 있으므로 業務에 密着되는 것부터 優先하여야 할 것이다. 委託派遣의 豫想種目으로는 도큐멘테이션, 語學, 電子計算機시스템 등으로 大別할 수 있겠다. 特히 모든 分野에서 電算化 傾向인 이때에 電子計算機시스템에 對하여 一般職員에게의 啓蒙 및 技術習得은 意義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5) 管理職에 對한 研修

本來 館內研修로는 主로 新規採用職員, 中堅職員을 對象으로 實施하여야 될 것이다. 그리고 研修의 窮極의 目的인 「勤務能率의 發揮 및 增進」을 위하여는 新規採用職員, 中堅職員만을 對象으로 研修를 實施한다

는 것은 不充分하다. 上層幹部가 定한 政策, 方針에 의하여 實際上 많은 職員을 指揮하고 業務의 遂行에 臨하고 있는 中間管理者에 對하여 管理監督上의 原理原則을 習得케하여 그것을 蹉跎없이 効率的으로 實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技能의 增進策인 研修도 必要하다. 또는 圖書館의 運營管理에 臨하고 있는 幹部職員에 對하여도 圖書館 Planning과 意思決定에 必要하고 確信과 識見을 가지고 館業務의 能率의 運營에 資하게 하기 위한 幹部職員研修도 重要하다고 하겠다.

오늘날 技術革新, 行政의 複雜化와 專門化, 社會秩序觀, 世代意識의 變化, 其他 內外의 情勢變動에 對處하여 從來의 既成概念, 前例의 踏襲만을 依存함은 許容할 수 없다. 圖書館의 能率의인 活動을 圖謀하는데 必要한 職員의 研修實施에 關하여는 研修의 實效를 얻기 爲한 方策, 人事計劃과의 關聯 등도 考慮하지 않으면 안된다.

(6) 受託研修

이 研修는 外部 關係機關으로부터의 依賴를 받고 이, 러한 機關의 構成員에 對하여 一定期間 實施하는 研修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自館職員을 對象으로 實施하는 館內研修와는 性質을 달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館內研修란 듣기에 서울大學校附屬圖書館에서 年 1,2회 實施하는 圖書館職員의 研修外엔 없는 것으로 보아 圖書館마다 館內研修를 實施하고 싶어도 諸般事情이 許諾하지 않아 못하고 있는 것으로 判斷됨으로 國立中央圖書館과 같은 大圖書館에서 이에 必要한 施設과 要員을 確保하여 國內圖書館職員의 再研修를 實施하였으면 하는 것이 筆者의 所望이다.

VI. 結 言

韓國圖書館協會의 75年度 以後 重要事業으로서 圖書館振興對策을 세우고 있는 줄로 알고 있다. 圖書館振興에 있어서 最大의 問題點은 有能한 司書를 養成하는 教育機關의 不足과 不充分하다는 點, 司書가 安心하고 意慾的으로 職務에 專念할 수 있는 任用制度의 確立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點, 그리고 能力을 向上시키는 研修機關이 없다는 세가지의 人事上의 問題이다. 養成과 研修는 本來 나라가 責任을 지고 實行하여야 하지만 政府의 對策이 없는 以上 圖書館協會를 頂點으로 한 圖書館界의 自律的인 解決方案을 模索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模索된 좋은 方案을 政府에 提示하여 改善을 要求하여야 함도 두말할 나위없다.

司書의 養成機關의 問題는 國家的인 課題로서 1個機關의 힘만으로는 到低히 解決할 수 없는 問題이다.

全國에 圖書館奉仕綱이 形成된다는 前提 아래 國家的 責任과 構想으로서 研修를 實施하였으면 한다.

이 研修所는 國立中央圖書館에 附屬하는 것으로 하여 國立圖書館이라는 圖書館條件을 基底로 奉仕活動의 水準을 全國의으로 높여, 相互協力의 實을 건우는 것을 目標로 專任, 兼任의 講師를 確保하고 實驗實習을 隨伴한 組織的이고 繼續的인 研修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國立中央圖書館에 研修所를 併設한다는 것은 全體 公共圖書館의 共通된 念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實現을 願한다고 하겠지만, 이에 對한 具體的인 問題는 國立中央圖書館을 中心으로 檢討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研修所의 機能으로는 적어도 모든 專門職員인 司書가 年에 1회는 研修를 받도록 하나의 種目에 對하여 1週間程度의 時間으로 上級職, 中級職, 初級職으로 區分하여 그 職에 必要한 專門의 技術을 講義와 實習으로 習得시키는 것을 目標로 考慮해 볼만하다고 생각한다. 이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研修所에는 相當數의

專任講師를 널리 館界, 學界에서 求하여 充實하게 研修를 實行하여야 한다. 또는 委託研修나 海外派遣등도 研修事業의 一環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다.

以上 너무나 私見을 羅列하였으나 筆者의 不足한 私見으로서는 問題의 本質조차도 잘 認識하고 있지 않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館界 先輩諸賢이 이 拙書를 읽고 矛盾된 點이나 잘못 提示된 點에 對하여는 바로 잡아 주기를 바랄 뿐이다.

다시 밝혀두지만 圖書館教育이나 圖書館職員의 研修에 對한 問題의 記述은 어디까지나 私見이며, 이 私見은 여러가지 面에서 감당할 수 없음도 알면서도 圖書館協會의 強勸에 못이겨 써보았을 뿐이다. 그리고 이 私見이 問題提起의 發火點이 되어 論議가 一層 거듭되고, 또한 이 問題의 解決에 前進이 있기를 期待하는 바이다.

「勤績賞」

物質의 豊饒 그것은 온 人類가 念願하여 왔던 至上의 目的이었으며 우리 모두의 希望이기도 하였다. 모든 國家는 이 豊饒한 社會를 俱現하고자 온갖 努力을 기우려 왔으며 部分的으로는 그 目標에 到達된듯 생각하게도 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國家의 發展이다 人類의 幸福과 直結되느냐 하는 問題는 전혀 별개의 문제가 되고 있다. 經濟學이 成長의 指標로서 오로지 國民所得의 增大나 生産增加의 擴大에만 集約되었던 時期는 이미 끝난 것이다. 「콜타이」의 反均衡의 經濟學이나 「불덩」教授가 말한 이른바 幸福의 경지까지 이끌어올리는 能力으로서의 經濟學 課題는 이러한 前時代로부터의 脫出을 찾는 實驗이었다. 確實히 富의 意味는 幸福의 內容과 一致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여러 條件中 하나가 될 수는 있을 뿐이다.

우리에게도 「잘 살아 보자」는 口號가 있다. 이 意味가 곧 物量의 豊饒를 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느 面에서는 當然하다. 好衣好食하는 生活이 바로 잘 산다는 뜻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富의 蓄積이 幸福의 尺度가 아님은 이미 수 많은 나라들이 體驗한 것이며 物量의 增加만을 劃策하였던 高度消費社會가 심각한 社會問題를 야기시키고 人間性 喪失의 병폐를 노정하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도

흔하게 듣고 또 보아오고 있다. 이러한 豊饒로 부터의 病弊는 결코 단숨에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長期的으로 反復되어 累積된 오도된 價値觀으로부터 結果되어 지는 것이다.

여기에 「잘 산다」는 意味가 富의 內容으로 識認되어서는 안된다는 理由가 있다. 우리에게 있어 「잘 산다」는 것은 옳게 살어 간다는 뜻과 結付되어야 하는 것이다. 物量의 無分別한 오만을 善導하는 지혜로움있는 生活 이것이 바로 잘산다는 뜻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圖書館은 지금 만연되어 가고 있는 착오된 大眾의 價値觀을 계몽하는 하나의 資源이 되어야 한다. 적어도 人間의 價値는 物量의 價値보다 偉大한 것이며 人間으로서의 존엄성이 그 精神的 價値에 있음을 立證하는 源泉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많은 圖書館人이 그의 정열을 바쳐 헌신하던 圖書館을 떠나 富의 追跡者가 됨은 웬일일까. 보다 좋은 俸給, 보다 좋은 收入이 결코 잘 산다는 뜻의 全部가 아닐 것이다. 우리에게는 일찍이 祖上이 보여 주었던 勤儉의 生活과 獻身의 努力이 깃든 正道의 生活이 바로 잘 산다는 語彙의 全部이어야 한다. 세삼 해마다 불려지는 圖協의 勤績賞을 받는 여러 선배의 장한 의지를 새겨 두어야 할 것이다. (玄圭燮)

